

의학관계잡지 종합목록의 발간사 및 제작방향

의정부성모병원도서관

정 학 수

연세의학도서관

김 해 양

I. 서 론

종합목록은 각 도서관 소장목록을 모아서 일정한 배열에 의해 만든 목록으로 어떤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특히 그 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속간행물에 있어서 각 도서관의 여건상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도서관 자료의 상호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종합목록인 것이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발족한 것이 자료의 상호이용에 목적이 있었던것 만은 아니지만 협의회가 창립되기도 전에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을 발행한 것은 그만큼 자료의 상호이용이 협의체를 형성하는데, 협의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상호이용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발간사

1967년에 서울시내 5개 의과대학 도서관이 양서 916종을 수록한 면수 154면의 초판을 발간한 이래 1991년에 87개 의학도서관(병원도서관 포함)이 양서 4,713종, 국내 390종, 동서 및 기타 768종 면수 964

면을 수록하여 8판을 발행하기까지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은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의학도서관이 각기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 종수도 많지않은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도서관의 자료도 상호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종합목록의 발행은 꼭 필요하였으리라 본다. 이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1967년 종합목록 초판을 발행하고 1991년에 8판을 발행하기까지 꾸준히 각 판을 발행하였으며 판사이에는 보유판이나 부록을 발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를 얼마만큼은 충족시킬 수 있었고 각 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67년 12월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의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서울시내 5개 의과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양서잡지의 목록을 모아 154면의 종합목록을 만들었다. 초판의 수록기간은 67년까지였다.

제 2 판은 1970년 5월에 9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322종을 51면에 실었는데 이는 1판에 기재된 것은 제외하고 추가분만 기록하였다. 제 2 판이라기 보다는 1 판의 부록정도의 성격을 가졌으며 69년까지의 소장분을 수록하였다.

제 3 판은 1971년 12월에 22개 도서관이 1,251종의 잡지를 245면에 71년까지의 소장분을 수록하였다.

제 4 판이 발행되기에 앞서 2번의 보의판을 발행하였는데 그 첫번은 1973년 2월에 국내서 154종만 수록하였고 두번째는 1974년 2월에 양서 750종을 수록하였다.

제 4 판은 1976년 3월에 발행하였는데 동·양서 목록을 처음으로 같이 수록한 것으로 그 가치를 들 수 있다. 32개 도서관이 소장한 양서 1,541종, 국내 210종, 동서 및 기타 424종을 646면에 78년까지의 소장분을 실었다.

1979년 4월에 발행된 제 5 판은 46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양서 2,067종, 국내 236종, 동서 및 기타 519종을 646면에 78년까지의 소장분을 실었다.

제 6 판은 1982년 4월에 61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양서 2,398종, 국내 294종, 동서 및 기타 644종을 727면에 실었으며 수록기간은 81년까지였다.

제 7 판의 발행에 앞서 1984년 12월에 82부터 83년까지 각 도서관 소장분을 실은 부록을 발행하였으며 제 7 판은 1986년 10월에 72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양서 2884종, 국내 354종, 동서 및 기타 715종을 707면에 85년까지의 소장분을 실었다.

제 8 판의 발행에 앞서 1989년에 또 한번의 부록을 86년부터 88년까지의 각 도서관 소장분을 180면에 실어서 발행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1991년 3월에 제 8 판을 발행하였다. 제 8 판은 1990년도까지의 양서 4,713종, 국내 390종, 동서 및 기타 768종을 964면에 87개의 각 도서관소장분을 실었다(표 1).

III. 제작상의 문제점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은 발행하는데 제작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판의 발행과 보유판, 부록을 합하여 총 12번 발행되었는데 각 제작기간은 평균 26.3개월 여에 한번씩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정기적

표 2.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의 발행 간격

판수	발행년	발행간격(월)
초판	1967. 12.	-
2판	1970. 5.	29
3판	1971. 12.	19
보유판	1973. 2.	14
보유판	1974. 2.	12
4판	1976. 3.	25
5판	1979. 4.	37
6판	1982. 4.	36
부록	1984. 12.	32
7판	1986. 10.	22
부록	1989. 3.	29
8판	1991. 3.	24

표 1.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발행내역

판 수	발행년	수록기간	참여기관	수록종수			면수	비고
				양서	국내	동서및기타		
초판	1967. 12.	~67	5	916	0	0	154	
2판	1970. 5.	~69	9	322	0	0	51	1판의 추가분만 기록
3판	1971. 12.	~70	22	1251	0	0	245	
보유판	1971. 12.	~71	19	0	154	0	22	한국의학관계잡지 종합목록
보유판	1974. 2.	~72	21	750	0	0	71	
4판	1976. 3.	~74	32	1541	210	424	477	동, 양서목록동서수록
5판	1979. 4.	~78	46	2067	236	519	646	
6판	1982. 4.	~81	61	2398	294	644	727	
부록	1984. 12.	82~83						
7판	1986. 10.	~85	72	2884	354	715	707	
부록	1989. 3.	86~88	71				180	
8판	1991. 3.	~90	87	4713	390	768	964	

표 3.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의 수록기간과 발행년의 차이

판수	발행년	수록기간	수록기간 과 발행년의차이
초판	1967. 12.	~67	-
2판	1970. 5.	~96	29
3판	1971. 12.	~70	24
보유판	1971. 12.	~71	12
보유판	1974. 2.	~72	26
4판	1976. 3.	~74	39
5판	1979. 4.	~78	52
6판	1982. 4.	~81	40
부록	1984. 12.	82~83	36
7판	1986. 10.	~85	34
부록	1989. 3.	86~88	39
8판	1991. 3.	~90	15

으로 발행되었기 보다는 자료가 취합되는 시점, 제작 과정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그때 그때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발행간격에 대해서는 발행 여건상 최선을 다한 발행으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수록기간과 발행년간의 차이는 계속구독 중간에 결호나, 구독중단 등을 무시하고 계속구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호대차의 획득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종의 하나인데 32.4개월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은 (표 3)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이 오로지 수작업으로 제작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종합목록의 제작을 특정 도서관에서 전담하여 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며, 제작위원회를 만들어 제작해야 하는 것은 협의회의 사업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IV. 종합목록의 전산화

현재까지의 종합목록은 수작업에 의해 제작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에 의한 제작을 서둘러야 함은 당연하다. 전산화에 의한 종합목록의 제작은 제

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정기적인 발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종합목록이 수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에 대해 우리는 제작 담당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 8 판의 예를 들어 87개도서관에서 각기 보내온 5,871종의 잡지를 종합하여 목록으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수작업의 형태로 제작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종합목록의 전산화에 의한 제작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종합목록의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의 정리를 전산화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면 바람직한 종합목록을 발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도서관의 현실 때문에 각 도서관의 소장본의 목록 제작은 수작업에 의하고 종합목록의 제작은 전산화에 의한 방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기서 외국의 학술잡지 종합목록의 전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속간종합목록의 전산화는 다른 도서관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대부분이 토달시스템 및 온라인화 되어 있고 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목록이나 연속간행물 업무가 온라인화 되어 있으면 종합목록은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에 관해서만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대표적 종합목록은 문부성이 발행하는 학술잡지종합목록과 일본의학도서관협의회가 발행하는 의학잡지종합목록을 들 수 있는데 학술잡지종합목록 자연과학 구문편 1975년판 부터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 발행되었으며 의학잡지 종합목록은 1977년 발행된 제 6 판부터 컴퓨터에 의해 목록발행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속간행물 기계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을 자관전용 내지는 몇개 도서관의 종합목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그동안 발행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은 상호대차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원도서관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

마다 소장 자료가 방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종합목록의 발행은 발행기간이 길어지고, 내용이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전산화에 의한 의학관계잡지종

합목록의 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발행에 관여하는 상설 위원회를 협의회 내에 설치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종합목록을 발행하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